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2011

10

Cover Story

공학으로 주를 찬양하는 과학자
월터 브래들리 박사

Worldview Column

과학적 증거들은 지적으로 설계된 우주를 지지하는가
TV속 맛집에 관한 진실_김재환 감독의 '트루맛쇼'
세계관과 생명윤리
서평 :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연회의 시작 – 엘타워

호텔 가격의 거품은 걸러내고 품격만을 남겼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선택으로 더욱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엘타워에서 국내 최고의 연회를 경험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닛산,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 비즈니스의 무대로 **엘타워**를 선택했습니다.



닛산 / 그랜드홀



마이크로소프트 / 그랜드홀



2010 SFAA 서울 컬렉션 / 그랜드홀



인텔 / 메리골드홀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포츠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02-526-8600 ~ 4 | 양재역 7번출구 바로 앞 위치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 VIEW

발행인

손봉호

편집인

김승욱

편집

차명실

기자

임지연

편집위원

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종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김도태

교정 자문

임춘택

자문봉사(녹취, 교정)

김하영, 김아리나

제작

한국학술정보

2011년 10월호

월간 WORLDVIEW 통권 136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02-754-8004

E-mail

(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facebook.com/cworldview



표지인물 월터 브래들리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를 위해 방한한 공학자이며 지적설계연구의 권위자이다. 최근 적정기술 연구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CONTENTS 2011.10

PREFACE

04 세계관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봉호

COVER STORY

04 공학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과학자

월터 브래들리 장수영

16 과학적 증거들은 지적으로 설계된 우주를 지지하는가 이승엽

COLUMN

22 라오스글로벌대학 설립을 바라보며 이종범

26 WHO의 건강도시 운동과 기독교 선교 노영상

31 생명윤리 특강 1

세계관과 생명윤리 이상원

CULTURE

35 TV속 맛집에 관한 진실 -김재환 감독의 '트루맛쇼'- 강진구

38 십자가 만들기 윤성진

43 김명엽의 찬송교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김명엽

BOOK REVIEW

44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노영상

47 『한국에서 홈스쿨하기』 박상진

NEWS

49 활동보고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 2011년 임원수련회 기조강연 —

☉ 손봉호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각 나라마다 동물이 우는 소리를 다르게 듣는다는 사실은 참 재미있다. 예를 들어, 닭이 우는 소리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꼬까두둘두’라고 듣고 독일에서는 ‘키계리끼’, 프랑스에서는 ‘꼬꼬리꼬’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귀는 ‘꼬끼오’라고 듣는다. 그런데 실제로 닭은 어떻게 울까? 분명히 같은 닭이 울지만 듣는 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짐승이 우는 소리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모든 현상에 대한 인식도 그럴 것이다. 조금 더 추상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짐승이 우는 소리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세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세계관이란 이미 만들어져서 그것을 수용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

다. 실제로 우리는 비기독교 세계관적인 문화에 감염되어 있다. 닭의 우는 소리를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에 의해서 그 문화에 따르는 세계관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우리의 목표라기 보다 이미 감염되어 있는 이 문화에서 벗어나 비판적이고 치유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결정론적인 시대

문화적인 단위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오늘날은 문화가 매우 중요한 문화결정론적인 시대에 들어왔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문화라는 것이 다 동일하며, 차이라면 발전된 문화와 후진적인 문화라는 발전의 차이 선상에서 인정했지 내용의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문화인류학자의 에스키모 문화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에스키모 문화가 서양문화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

문화의 성격은 역시 종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것은 누구도 더 이상 질문 하지 않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공리(公利)가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문화라는 것은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다.

있고 이후 문화상대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렇다면 문화는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되는가. 여기에는 문화풍토론이 있다. 기후가 온대지방인가, 한대지방인가, 사막지역인가, 산간지역인가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문화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풍토론은 전면 수용하는 학자는 없다. 문화의 성격은 역시 종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것은 누구도 더 이상 질문 하지 않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공리(公利)가 종교이기 때문이다.

문화권을 나눌 때 기독교문화권, 불교문화권, 이슬람문화권으로 나뉘는 것을 보면 종교는 아직까지 문화권을 구분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미 어떤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고 시작했다. 아브라함 또한 갈대아 우르의 우상문화에 속해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것인 내포되어 있다.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가나안 거민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을 볼 때도 알 수 있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조만간 이스라엘백성들도 그들을 따라 우상숭배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그만큼 종교적인 문화라는 것은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다.

기독교는 땅위의 사람이나 혹은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기독교는 그런 세계관이며 문화이다. 아직까지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성경적인 문화는 존재해 본 적도 없고, 아마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국문화라는 세속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문화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세상을 중립적인 의미의 세계로도 많이 표현하지만, 그보다는 죄로 물든 세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세계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란 비성경적인 공리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 쪽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세속화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를 세속화 되었다고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까? 세속화라는 말은, 1700년에 처음 공식용어로 사용되었는데, 가톨릭 교회의 소유로 되어있던 땅을 민간인의 일반토지로 바꿀 때 세속화시킨다는 표현을 썼다. 오늘날의 세속화란 비신격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하나님 없이도 자연환경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이다.

한국문화는 또한 아주 세속화에 적합하게 되어있는데 한국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샤머니즘과 유교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신론이다. 또한 샤머니즘과 유교는 내세를 부인하며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한국의 문화를 특징짓는 이들 두 종교는 철저히 현세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두 다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현세중심적인 문화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에 경쟁심이 강한 문화를 형성해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경쟁적인 분야의 탁월함에 비하여 비경쟁적인 부분은 낙후되어있다. 특히 윤리성을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와 체면문화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ی 아닌 사람들의 평가에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이 나가야 할 길

한국의 기독교는 현재 이런 상황 속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세계관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샤머니즘, 유교가 만들어 놓은 현세중심적 세계관을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더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교회가 앞장서서 현실사회에서의 성공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전 국민의 17.6%밖에 안 된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고학적으로 따져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삼위일체,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이러한 과학의 범주를 뛰어 넘는 사실들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증인'이란 믿음직한 증인을 말한다. 단순히 충성, 봉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뢰도 17.6%라는 수치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한국문화의 부정적인 면들, 특별히 성경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바꾸는 활동을 해야한다. 성경적인 문화로 사회를 바꿔야 하는 것이 세계관 운동이 할 일이다. 기독교는 물론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말씀만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기독교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씀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즉 우리 삶에 믿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이론적인 연구와 노력도 많이 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발견한 옳은 길을 따라서 살고, 믿고 활동하는 것을 겸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확산될 때에 기독교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와 사회에 이로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쓰자.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화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문화포럼 대표이사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1회 다니엘 아카데미

주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일자 2011. 10.10-11.21 매주 월요일

시간 오후 7:00 ~ 9:00

회비 1만원 (국민은행 271437-04-002174, 다니엘교회)

주관 다니엘새시대교회

장소 서울영동교회

<http://www.sydc.net/>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

문의 민동기 집사(dkm2@konkuk.ac.kr, 010-4221-9501)

1차(10/10) “기독교는 소통의 종교”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철학)

2차(10/17) “소통의 출발: 미디어로 세상의 소리 읽기”

박진규(서울여대, 언론홍보)

3차(10/24) “과학과 공학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박근수(서울대, 컴퓨터공학)

4차(10/31) “소통을 위한 문화적 상상”

송태현(이화여대, 불문학)

5차(11/7) “가깝고도 먼 그대와 만나고 싶소: 부부 및 남녀 커플의 소통 연습”

한영주(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학)

6차(11/14) “그리스도인의 삶과 법률”

김한주(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7차(11/21) “비기독교인 및 다른 종교와의 소통”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철학)

COVER STORY



공학으로 주를 찬양하는 과학자

월터 브래들리(Walter L. Bradley)

🎙 인터뷰 장수영(포항공대 산업공학과 교수)

먼저 가족 소개와 함께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 한 아내와 가정을 이룬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며 모두 결혼하여 손자와 손녀 7명을 얻었습니다. 침례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12세에 교회 여름 캠프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돌아와 3개월 동안 가장 읽기 힘들다는 킹 제임스 성경을 모두 읽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요? 옛 문체인데, 레위기나 민수기를 넘기기 쉽지 않으셨겠네요(웃음).

예, 읽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읽기 쉬운 요한 복음을 읽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 들어가서는 CCC에 참여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기억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생각하면, 신앙 성장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아쉬운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목회와 선교를 전공으로 하지 않는 공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주되심’을 온전히 받아 들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다. 그 당시, IVP에서 펴낸 로버트 멩어의 『내 마음 그

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참으로 잘 표현한 책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회와 선교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에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공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박사학위를 마칠 즈음, 확실한 방법은 몰랐지만 저와 아내는 어떻게든 공학자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시도해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CCC 사역과 교수 사역이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다녔던 시절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교수를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Colorado School of Mines)으로 가면서 CCC 사역과 교수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교수 사역을 해보기로 아내와 함께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Colorado School of Mines)은 어떤 곳이었나요?

그곳엔 그리스도인 교수가 거의 없었고 그리스도인 학생그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 교수직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교수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기숙사를 찾아가고, 교수들과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기간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한동대, 카이스트 교수, 목회자들과 환담하고 있는 브래들리 박사.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은 수업 시간에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인상 깊게 들은 학생이 학교 신문 편집장에게 그 간증 내용을 학교 신문에 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신문 편집장이 제게 간증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공공연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 대학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편집장은 아마도 제가 간증문을 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길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편집장은 “길수록 좋다” 하기에, 아주 긴 간증문을 학교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때 학교 신문은 몇 쪽 되지 않았기에 꽤 눈에 띄는 글이 되었지요(웃음).

콜로라도에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나요?

제가 있는 동안 1,600명 학생 중에 CCC 학생 100여 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면 1,600명 학생 중에 1,3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큰 성공이었지요. 그때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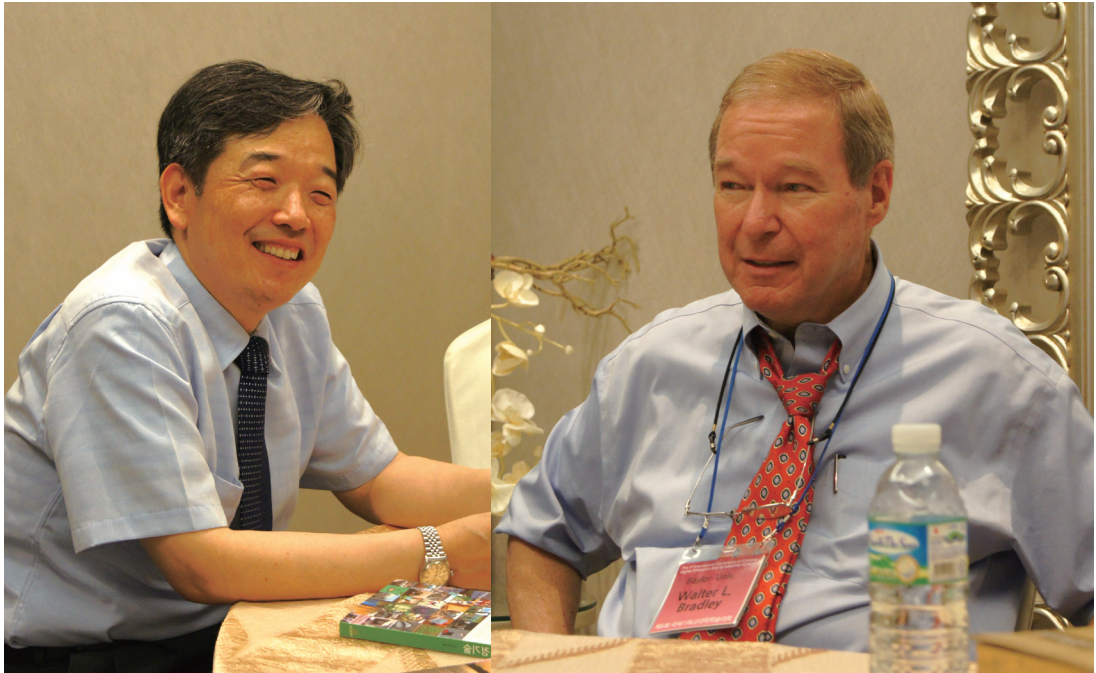
60명의 중보기도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텍사스 A&M 대학으로 가게 되었지요?

CCC 그룹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CCC에 전임 사역자를 파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너무 커진 그룹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전임 사역자가 오지 않아 무척 지쳤습니다. 또, 고향 텍사스로 돌아가고 싶어졌고 텍사스 A&M 대학에서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텍사스로 떠났고, 우리가 떠난 후에 CCC는 두 명의 전임 사역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의 CCC 사역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에서의 사역은 어떠했나요?

텍사스 A&M 대학의 분위기는 극도로 세속적이었습니다.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지나치게 진보적인 입장만이 지나치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0여 년을 지내면서 구성원이 200명에 이르는 그리



스도인 교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1년에 4번 신문에 그리스도인 교수가 서명한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에 서명하는 교수의 수가 처음엔 24명이었지만 나중엔 200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극도로 세속화된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 교수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으로 더욱 심한 세속화를 막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콜로라도와 비교하면 텍사스에서의 사역은 어떠했나요?

그리스도인 교수가 콜로라도에서 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쉬웠습니다. 특히 교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텍사스에서의 교수 사역은 모범 사례가 되어 미국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에서 사역하며 저는 『창조의 과학적 증거』라는 책을 쓸 수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텍사스는 물론 전국을 다니며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의 세미나에는 1,800 명이 넘는 청중이 왔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뭐 있겠어?” 하며 우습게 보

는 태도로 세미나에 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과학적 논리로만 창조의 증거를 찾아가는 저의 논쟁 자체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교수 사역은 미움을 받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번은 신문에 낸 그리스도인 교수의 광고를 제 연구실 문에 게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원인이 되어 제가 속한 공대 학장이 제게 그리스도인 교수 사역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교수 사역 때문에 텍사스 A&M 대학에 왔기 때문에 그만 둘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장은 연구실 문에 그리스도교를 옹호하는 게시물을 다는 것과 학교 공대 건물 안에서 그리스도인 모임을 갖는 것을 모두 금지하였습니다.

무척 화나셨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화가 나긴 했지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대학의 정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헌법에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과학적 논리로만 창조의 증거를 찾아가는 저의 논쟁에 비그리스도인들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보수 논객인 조지 월도 “공공 게시물에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된다.”는 식의 말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조지 월의 글과 대법원 판결문을 학장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학장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시를 취소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저의 교수 사역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교수들의 모임을 캠퍼스내의 공식 모임으로 등록하는 것도 허락되진 않았습다. 그래서 저는 ‘히스패닉 교수회’, ‘여성 교수회’ 등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교수회’도 있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여 결국 그리스도인 교수회를 캠퍼스 내의 공식 모임으로 인정받고, 등록하였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셨군요. 그리스도교 학교인 베일러 대학으로는 옮겨가시게 된 것은 적정기술을 하시기 위해서였나요?

‘공학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베일러 대학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옮길 당시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공학 기술은 첨단소재와 관련된 것으로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선의 몸체를 만드

는 재료와 관련된 것들이었기에 그것으로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년을 맞게 되어 파푸아 뉴기니 출신 졸업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떤 연락을 하셨나요?

그 졸업생은 마찰학(Tribology)으로 학위 논문을 쓴 친구였는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마찰학(Tribology)을 잘 사용하고 있겠지?”라고 묻자 그 친구는 “전혀요...”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은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한 내용을 자신의 나라에 귀국한 후에 잘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기에 농담으로 물어 본 것이었지요(웃음).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저는 그 친구에게 그 곳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 이냐고 물었고, 그 친구는 코코넛 오일에서 바이오 연료를 뽑는 것과 코코넛 껍질의 성분을 이용해서 파티클 보드를 만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서 바이오 연료를 뽑는 것은 가능했지만,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코넛 껍질에서 파티클 보드를 만드는 것은 가능했으며, 만일 미국에서 생산하여 미국 시장에 판매하면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학적 지식입니다.
한국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공학 지식은 한 나라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한국의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학자들은 구매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다. 이 구도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그 사업으로 현지인들에게 고용과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에게 발생하는 수익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 자신과 자녀의 교육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voucher)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일은 공학 지식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수님의 관심이 창조에 대한 과학적 증거였는데 어떻게 관심이 변화되었나요?

아마 성인 주의력집중장애증(Adult ADD) 때문이겠지요?(웃음) 사실, 개도국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월드비전과 같은 구호 단체를 통해 돕는 것이 다였습니다. 공학 기술이나 사업체를 통해 이들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체를 만들어 고용과 소득의 기회를 주는 것은 현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학자로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재미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늘 공대 신입생들에게 말할 기회가 오면, “공학은 단지 재료, 기계, 전기, 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료, 기계, 전기, 전자, 그런 것들 것 단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공학적 지식입니다. 공학적 지식이 한 나라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한국의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학자들은 구매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공학적 산물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학적 산물이 가져온 도움이 지속되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공공성과 이익추구를 모두 중요시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지속적인 고용과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도 맑은 물을 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투명한 물을 보여 주면 아이들은 한없이 신기해합니다. 자신의 공학적 지식으로 만든 장치로 투명한 물을 만들어 보여줄 때 신기해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그 공학자에게 어떤 다른 성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단지 물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많은 공학 문제들이 그리스도인 공학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터 브래들리(Walter L. Bradley)

24세에 재료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Texas A & M 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및 학과장으로 봉직하였으며 현재는 Baylor 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학술단체인 ASA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수많은 학술 논문과 8개의 공저서가 있다. 그 중에서 찰스 텍스턴(Charles Thaxton)과 로서 올슨(Roger Olsen)과 함께 쓴 〈생명 기원의 신비: 현재 이론들을 재평가하며, The Mystery of Life's Origin: Reassessing Current Theories(1984)〉라는 책은 이후 생명 기원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지적설계운동의 설립과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란 주제로 전세계 100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유신론 과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그의 강연의 논점은 우리 우주는 복잡하고 의식을 지닌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놀라운 만큼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일련의 우연적 사건들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에 새겨진 우아한 수학적 형식들, 정교하게 조율된 19 개의 우주상수들, 수많은 초기조건들은 이 우주가 우리를 위해 사려깊게 제작되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의 공저서인 〈생명 기원의 신비〉는 마이클 덴턴(M. Denton)이 쓴 〈진화론과 과학, Evolution: A Theory in Crisis(1986)〉과 함께 현대 지적설계론의 효시적 저작들 중 하나로서, 고대로부터 이어져오던 설계론을 현대 과학으로 부활시킨 책으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연구들에 영향을 받고 설계론적 관점의 과학적인 학술운동인 지적설계론이 1990년대 출현하였다. 지적설계운동은 1991년부터 필립 존슨(Phillip Johnson)이 〈심판대의 다윈, Darwin on Trial〉이 출간된 시작되었으며 마이클 비히의 〈다윈의 블랙박스, Darwin's Black box〉은 1996년에 출간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학술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버클리 대학교 법학과의 필립 존슨(Phillip Johnson) 교수가 〈심판대의 다윈, Darwin on Trial〉을 출간한다. 지적 설계 역사에서 시초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기존의 반진화론 학자들이 주장한 대진화와 화학 진화의 증거 부족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진화론 자체가 철학적 자연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종교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화론 자체에 대한 의심이 불가능하도록 논쟁의 규칙을 잘못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한다. 이 책이 출간된 후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의 전문 학술지의 서평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및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필립 존슨의 입장에 동의하는 많은 철학자 및 과학자들이 참여하면서 공식적인 지적설계 운동이 시작되었다. 1996년에는 미국 리하이 대학교의 마이클 비히 교수가 〈다윈의 블랙박스: Darwin's Black Box〉 출간한 것이다. 필립 존슨의 〈심판대의 다윈〉에 대한 사이언스지의 비판적 서평에 대해서 반론함으로써 지적 설계 운동에 참여하게 된 그는 〈다윈의 블랙박스〉에서 생물학적 시스템 중에는 박테리아 편모와 같이 자연선택과 돌연변이의 자연주의적 방법으로 생성될 수 없는 많은 복잡한 구조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생물학적 복잡성을 가지는 시스템을 비히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의 정의하는데 이는 진화의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설계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원리에 대해서 지금도 진화론 생물학자를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다.



그림 1.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의 선명한 이미지들이 새겨진 러쉬모어 산

과학적 증거들은

지적으로 설계된 우주를 지지하는가?

월터 브래들리 교수 강연회 요약

이승엽

2011년 6월 24일 서강대학교 열린 월터 브래들리(Walter Bradley) 교수의 강연회가 서강대학교에서 열렸다. 지적설계연구회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공동 주최한 이 강연에는 오랫동안 진화론적 생명 기원 대한 학술적인 반증과 기독교 세계관을 변증하는데 활동해온 월터 브래들리 교수의 강연을 직접 듣고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으며 탁월한 강연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호 월드뷰에서는 브래들리 교수의 강연과 원고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지적으로 설계된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가 지적인 설계자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합리성과 우연성을 찬양하는 이 과학적 시대에, 어떤 경험적 증거들(empirical evidences)이 그런 주장을 지지해줄 수 있을까? 인간이 우주의 가공할만한 복잡성을 사유할 때, 우주의 어떤 특징들은 사실 그 ‘집’이 바로 우리를 위해 사려 깊게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는가? 창조성과 설계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경험들이 어떤 우주적 설계자라는 개념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지적 설계론에 관한 논의의 근저에 놓여있으며, 이 논의는 우주의 기묘한 복잡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독교자들과 세속학자들 양측에 의해 다시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자연계에서 설계된 물체를 확인하는 것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전통적인 다윈주의를 옹호하는 주요 변증가들 중에 한 명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1996년 에세이집 <불가능한 산 오르기>에서 설계된 인공물과 이와 유사한 자연적 사건들을 대비시키면서 설계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도킨스는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의 선명한 이미지들이 새겨진 러쉬모어 산(Mount Rushmore, 그림 1)을 예로 들어 설계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와 달리, 자연적으로 생성된 하와이의 어떤 바위는 케네디 대통

령을 닮은 그림자(그림 2)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자연의 우연적인 발생을 예시한다. 러쉬모어 산을 조각한 것은 조각가(이 경우, Gutzon Borglum)라는 것이 자명하다. 네 명의 대통령의 얼굴들을 닮은 러쉬모어 산 얼굴들이 지닌 셀 수 없을 정도의 세부묘사들은 지적인 원인의 존재, 즉 조각가를 증거한다. 그 누구도 이 장엄한 얼굴들을 바람, 비, 진눈깨비, 우박이 빚어내는 창조적인 힘들이 만들었다고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도킨스는 설계망상(designoid)을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계와 같은 거의 완벽한 환상을 창조해내는 비우연적인 어떤 과정에 의해 빚어진’자연의 공예품으로 정의한다. 설계망상은 러쉬모어 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연적 과정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 자연의 공예품이다(말하자면, 생명체의 경우, 자연선택이 그 비우연적 과정이 될 것이다). 지적 설계의 가능성을 평가해보는 첫 번째 과정은, 설계로 보이는 모든 외적인 ‘모습’이 그저 설계망상인가 또는 지적 창조자에 의한 설계의 진짜 예인가를 검토해보기 위해서 자연세계의 특징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다.

브래들리 교수는 자연계에서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지적으로 설계된 원리를 찾아 나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강연에서 언급하였다(지면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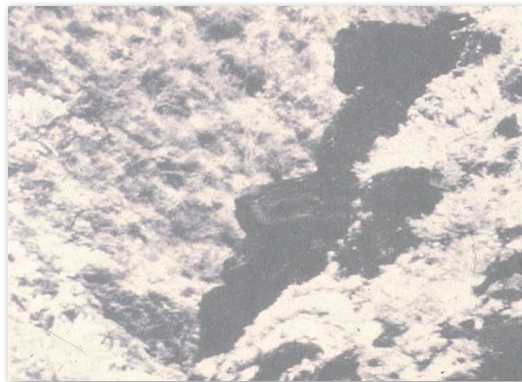


그림 2. 자연적으로 생성된 하와이의 어떤 바위는 케네디 대통령을 닮은 그림자



- 공학적 설계와 경계조건 설정
- 거주 가능한 우주를 위한 필요사항들을 설계하는 것
- 생명체를 위한 적합한 우주 속에서 거주 가능한 지역을 위한 필요들을 설계하는 것
- 설계: 수학과 우주의 구조
- 설계: 보편적 상수 또는 우주적 우연의 일치들
- 설계: 전자기력과 중력의 균형 맞추기
- 설계: 핵강력과 전자기력
- 설계: 아원자 입자들의 정지 질량
- 설계: 핵약력을 조절하기
- 결정적인 초기 또는 경계 조건들: 빅뱅
- 거주 가능한 우리 우주의 독특한 설계
- 행성 지구의 온도 제어
- 판 구조

그의 강연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의 과학적 발견들은 자연주의와 지적 설계 중에 무엇을 지지하는가?

설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내가 처음 사용했던 예제는 매우 간단했다. 그것은 하나의 물리적 법칙, 하나의 보편상수, 그리고 두 개의 초기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쉽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광장에서 거닐고 있는 내 친구를 맞추기에 적합한 때에 피사의 사탑 아래로 내 물풍선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설계 문제에 해당한다.



복합하고 의식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거주지를 포함하는 우주는 정말 독특해서, 현실적으로 말해, 일련의 우주적 우연들의 결과물이라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합하고 의식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거주지를 포함하는 우주는 정말 독특해서, 현실적으로 말해, 일련의 우주적 우연들의 결과물이라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a) 자연법칙에 부여되어 있는 수학적 형식들, (b) 19 개의 우주 상수들의 정확한 특정화, (c) 별 형성과 가장 단순한 생명체들에 요구되는 독특한 초기조건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위한 어떤 자연적인 설명이 있다고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이나 다름없다.

프린스턴 고등과학연구소의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Freeman J. Dyson)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는 마치 암시적으로 유신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스스로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작용해 온 물리학과 천문학의 많은 사건들을 확인할 때, 그것은 마치 우주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타날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보인다.”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아르노 펜지아스(Arno Penzias)는, 수수께끼 같은 우리 우주에 대해 사색하면

서 이렇게 말한다.

“천문학은 무에서 창조되었으며 생명체를 위해 필요한 정확한 조건들을 제공하도록 세심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독특한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부조리하다고 생각될만큼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는한, 현대 과학의 관측결과들은 초자연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어떠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 경은 1950 년대에 <우주의 본성 The Nature of the Universe>이라는 저서를 통해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로 다수의 특별하고 필수적인 우주와 지구의 특성들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30 년 동안의 발견들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1983 년에 쓰인 <지적인 우주 The Intelligent Universe>라는 저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한 특징들은 가느다란 실선처럼 연결된 행복한 우연의 일치들처럼 자연 세계의 구조를 관통하고 있



다. 그러나,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기괴한 우연의 일치들이 너무나 많다.”

왜 프레드 호일 경과 같은 많은 과학자들이 지난 30년을 거치면서 생각을 바꾸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이제 우주가 어떤 우주적 우연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강연자의 결론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러쉬모어 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 우주와 그 속에 속한 행성 지구가 러쉬모어 산과 유사한지, 아니면 마치 그림자가 존 F 케네디의 실루엣처럼 보이는 하와이의 바위와 유사한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내게 있어 그 답변은 아주 명확하다. 이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과 학계에서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관련된 정보들에 기반해 볼 때, 우주는 그 복

‘증거(evidence)’와 ‘증명(proof)’라는 용어의 차이가 결국은 현재의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새로운 대안 이론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잡성에 있어서 러쉬모어 산에 의해서 더 잘 표현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우주와 그 속의 거주지에 대한 비유로서 러쉬모어 산은 부적합하다.

만약 러쉬모어 기념비의 몇몇 부분들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네 명의 대통령에 대한 인상들이 다소 손상되긴 하겠지만 모조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다섯 가지 근본 법칙들 중에 하나라도 결핍된다면, 보편 상수들 중에 하나라도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면, 많은 초기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우리 우주에서 생명체는 아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강연회에 대한 고찰

강연회에서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명지대 박희주 교수의 통역으로 강연이 이루어졌는데 브래들리 교수는 이 치열한 논쟁 분야에서 오랜 동안 연구와 강연을 해온 분답게 시종 일관 지적으로 설계된 우주와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설파하였다. 강연 후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의 표현대로 ‘증거(evidence)’와 ‘증명(proof)’라는 용어의 차이가 결국은 현재의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새로운 대안 이론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증거

란 모두 경험 과학에서 다루는 경험적 증거 또는 근거를 의미하는데 현재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다룸에 있어서 이론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말하지만 이는 논리적인 필연성 또는 확실성을 담보하는 증명이 될 수는 없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 방법은 현재의 주류 과학 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설계론적 접근 방법을 현재 과학에서 “과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의 솔직한 표현을 들을 수 있었다. 경험적으로는 지적설계적 관점을 자연주의적 관점 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지만 과학 이론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현재의 딜레마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몇 개 과학 학술지에 게재되는 지적설계론 입장의 논문들과 후속 연구들이 향후 이러한 과학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보길 기대하는 과학자들의 오랜 꿈이 아닐까 한다.

* 브래들리 교수 강연회의 내용 원본과 참고문헌은 지적설계연구회 홈페이지 www.intelligentdesign.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승엽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학과장이며 지적설계연구회 회장이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라오스글로벌대학교 설립을 바라보며

이종범

라오스는 어떤 나라인가?

라오스는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지만 바다가 전혀 없다. 태국과 베트남, 중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정도의 면적을 가진 나라로서 인구는 약 650만 정도가 된다. 역사적으로는 태국의 많은 땅과 민족이 과거 라오스 땅과 민족이어서 언어와 풍습, 종교가 매우 비슷하다. 근대사는 매우 복잡해서 프랑스가 점령하기도 하고, 잠시 동안 일본이 점령하기도 하였고, 또 베트남전쟁 때에는 미국이 개입해서 내전이 일어났던 나라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75년에 사회주의인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이 수립되었고, 우리나라와는 1995년에 정식외교관계를 맺었다.

비록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평화롭고, 개방적이며, 정치적으로는 인근 미얀마 군사정권과는 달리 안정적인 나라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고, 국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세계적 관광명소도 별로 없는 가난한 나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매우 온순하고, 친절하며, 급하지 않고, 화도 안내며, 싸움도 없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이 뒤섞여서 다니는데도 크랙션 소리 하나 내

헌신된 섬김과 교육이 살아있는 좋은 대학은 공식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라오스 땅에서 최선의 선교방법은 물론, 국가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통로이다.

지 않는 민족이다.

라오스의 종교

동남아시아가 그렇듯이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신자이다. 도처에 크고 작은 절이 많이 있다. 가정집이나 호텔, 관공서 등 모든 곳에는 음식을 놓는 크고 작은 제단이 있을 정도이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어서 라오스에는 약 18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26개 정도의 가정교회와 수도 비엔티안에 3개의 교회가 있다. 또 라오스 복음교단의 신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500-600개의 작은 기도처가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특히 출세를 하려면 당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당원이 되기는 어려운 일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회나 가족 그리고 친지로부터 외면당하고 출세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교의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 선교사 가정도 점점 증가해서 여러 가정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선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직접선교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들 간접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NGO나 개인사업, 또는 교육사업을 통해서 한다. 그런데 NGO는 라오스 정부관계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사

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어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또 스포츠 등을 통해 선교를 하고 있다. 물론 교회를 아주 시골에 세우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선교에 어려움이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거나, 미래를 보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LGU 설립 이유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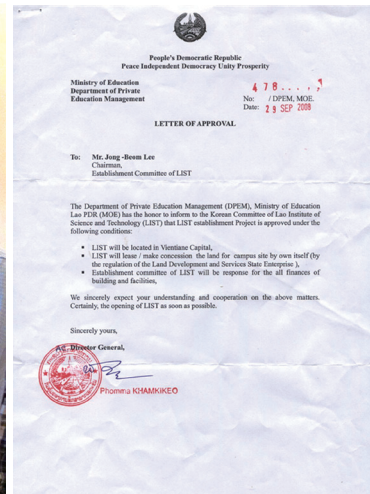
언급한대로 라오스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이며, 영적으로 볼 때 불교 국가이다. 교육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4년제 정규대학은 국립대로서 수도를 포함 두 곳뿐일 정도로 거의 없고, 교수요원도 학사출신이 대부분이다. 연구는 물론 할 수 없다. 그래도 젊은이들의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만큼은 대단한데, 갈 곳이 적어 이곳저

곳 방황할 수밖에 없다. 선교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을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 듣지 못해 여러 면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런 곳에도 선교의 방법은 물론 국민들이 우리 같이 번영된 나라 안에서 장차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선교를 기반으로 한 정규대학을 설립하여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교수진이 젊은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인이 세



라오스글로벌대학교(LGU) 부지계약



라오스정부의 대학설립승인서

워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선교기반대학에서 교직원들의 헌신된 사역과 가르침으로 변화된 후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공부한 후 돌아가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헌신된 섬김과 교육이 살아있는 좋은 대학은 공식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라오스 땅에서 최선의 선교방법은 물론, 국가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통로이다.

예수님은 열악하고 소외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관심을 갖고시고 베푸는 것을 몸소 보여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지적, 물질적, 영적인 것들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라오스에 LGU가 설립된다면 영적으로 묶였던 라오스가 점점 풀려지고 복음이 서서히 전파될 것이다. 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변화되어 기독교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소유한 인재들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라오스에 복음이 퍼져 나가고, 물질적으로도 번영된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영적 불모지 라오스가 동남아의 영적 발원지가 될 것이다.

LGU의 교육적 특징

라오스 현지와 우리의 지원 가능성이 맞는 분야부터 개설하려는 계획에 따라 초기에는 전기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국제경영, 영어, 한국어, 체육 분야부터 시작해서, 장차 농업 등 다른 분야까지 넓히려고 한다. 교수요원은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구에서 파견된 전문인 선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밀착된 삶의 나눔을 위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국제화를 위해 대부분 영어로 강의할 예정이며, 한국유학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심어주고, 귀국 후 교수요원이나 국가 중요부서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선교사역을 전혀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적으로는 전형적인 일반대학, 즉 또 다른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라오스 정부가 부러워할 정도의 국립대학을 능가하는 최상의 대학을 지향하지만, 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복음과 기독교세계관을 전파하는 대학 운영을 구상 중에 있다.

정말 LGU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운영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학” 이 되고, “진리와 섬김”을

설립정신으로 라오스 및 동남아 젊은이들이 복음을 품는 자로 자라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LGU 진행

대학설립을 위해 2006년부터 라오스 교육부 고위 관계자, 주한 라오스 대사의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설립의지를 밝혔고, 외교과정을 통해 라오스 교육부로부터 2009년 공식설립승인서를 받았다. 또한 2008년 LGU 설립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LGU 설립은 물론 라오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매달 정기적으로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청산종합건설(주) 대표이신 김상용 후원회장 등 7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라오스 현지에서 사역기간이 가장 길고 영향력 있는 선교사 네 명이 연합하여 동역하고 있다.

대학은 수도 비엔티안 내에 설립할 예정이다. 금년 7월에 설립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하여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12,000평 부지를 일단 구입하였고, 추후 더 구입 예정이며, 2013년에 기공식을 하고, 2015년에 개교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설립사업의 재정 확보를 투명하게 하고, 넓히기 위해 (사)사랑의 열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협력 MOU를 지난 8월 체결하였다. 그리고 동남아교육개발을 위한 NGO 기관인 글로벌비전과도 MOU를 체결하여 연합하고 있다. LGU 설립을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부하면 100% LGU 설립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한 기업 이건 개인이건 다른 기부처에 비해 가장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학교설립 및 운영은 앞으로 가칭 '동남아교육협력

재단' 을 만들고, 이사진을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현재는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소명감을 갖고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된 교수요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미 이루어진 유사한 교육기관의 헌신도 그곳의 부족한 부분이 많아 필요하지만 아직 준비 중인 곳에서 함께 기획하며 추진하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일 것이다.

선교기반의 대학이야말로 라오스에 소망을 심는 통로라고 믿고 뜨겁게 재정적으로, 혹은 교수요원으로 헌신해 주실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결론

현재는 모든 면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라오스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 민족을 서서히 복음화되고, 번영의 나라로 바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소명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직접 찾고 계신다. 비록 인적, 물질적 면에서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직접 설립에 참여하시고 운영도 하실 것이다.

이러한 사역은 연령과 성별, 학력에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열악하고 가난한 그 민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싶으신 분이시면 된다.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통해 정말 라오스가 어둠에서 빛으로, 좌절에서 소망의 열매를 보는 나라가 될 것이다.

*** LGU 설립추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010-2285-2728(염은순 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원광대 전자, 전기통신학부 교수.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Berlin 공대, 영국 City 및 Brunel 대학, 스위스연방공대(ETH) 등에서 연구교수, 텍사스 주립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객원교수를 거쳤다. 침신대 대학원(M. Div. 및 Th. M)을 졸업하였고, 한국전기연구원 지중송전연구실장, (사)기독교기술교육동역회 이사, 실행위원장, 통합연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대한전기학회 전력계통 부회장이며, 라오스글로벌대학교(LGU) 설립위원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WHO의 건강도시운동(Healthy Cities Movement)과 기독교 선교

◎ 노영상

건강도시(Healthy Cities) 운동의 시발¹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사회적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화와 도시화라 할 수 있다. 산업화된 공장들이 도시에 들어섬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도시 인구의 팽창이 수반되었으며, 거대 도시의 출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작금의 통계는 세계 60억 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30년 후 세계인구는 80억에 이를 것이며, 그 중 60억 명 정도가 도시 거주자가 될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이다.²

이 같은 도시화는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의 증진 및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그에 따른 많은 폐해도 있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음식의 안전, 주거 문제, 고용, 수질 및 공기의 오염

에 따른 환경 문제, 미래 세대의 건강, 범죄와 폭력과 성 밀매 증가, 약의 남용, 국가적 재앙 및 인재에 대한 취약성, 전염병 확산의 용이성, 사회적 불안정성, 도시 빈곤층의 양산, 출산율의 감소,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정신적 건강의 문제, 쓰레기 처리의 문제 등이 그것들이다.³

건강도시(Healthy Cities Movement)는 이 같은 도시의 포괄적인 문제를, 모두가 포착하기 쉬운 건강이란 개념을 중심에 놓고 대처하려 한다. 건강도시운동은 1984년 토론토에서 열린, ‘보건을 넘어서(Beyond Health Care)’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바 있다. 이와 같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주도되어 온 ‘건강도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⁴ “건강도시란 그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1) 본 글은 필자의 책 『기독교와 생태학』 (서울: 성광문화사, 2008), 제7장 생명 살리기 운동으로서의 건강도시(Healthy Cities) 운동의 내용을 일부 간추려 보완한 것이다.

2) Takehito Takano, ed., *Healthy Cities and Urban Policy Research* (London: Spon Press, 2003), 1.

3) Takehito Takano, ed., *Healthy Cities and Urban Policy Research*, 2-3.

4) <http://healthycity.seoul.go.kr/city/hc/hc03.jsp>

건강도시란 그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개선하며, 삶의 모든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시의 최상의 잠재성을 개발함에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대해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창조하고 개선하며, 삶의 모든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시의 최상의 잠재성을 개발함에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대해나가는 도시를 말한다.”⁵ 이러한 건강도시 운동은 유럽의 도시들로부터 출발하여, 현재는 세계에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서울시, 창원시, 원주시, 부산진구 등이 참여하였으며, 그 후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 2011년 현재 60여 지자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도시의 정의와 구성 요소들(elements)

건강도시(healthy cities)는 도시건강(urban health)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보고들은 빈곤, 폭력, 사회적 소외, 공해, 낙후된 주거, 노년과 젊은 층의 불만, 노숙자, 잘못된 국토계획, 참여와 불평등요구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결핍과 같은 증대되는 건강에 대한 도전을 언급한다. 이러한 ‘건강도시’에의 추구는 건강에 대한 생명 의료적 접근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통전적인 접근을 통해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중의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이며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들의 상호관련성 가운데에서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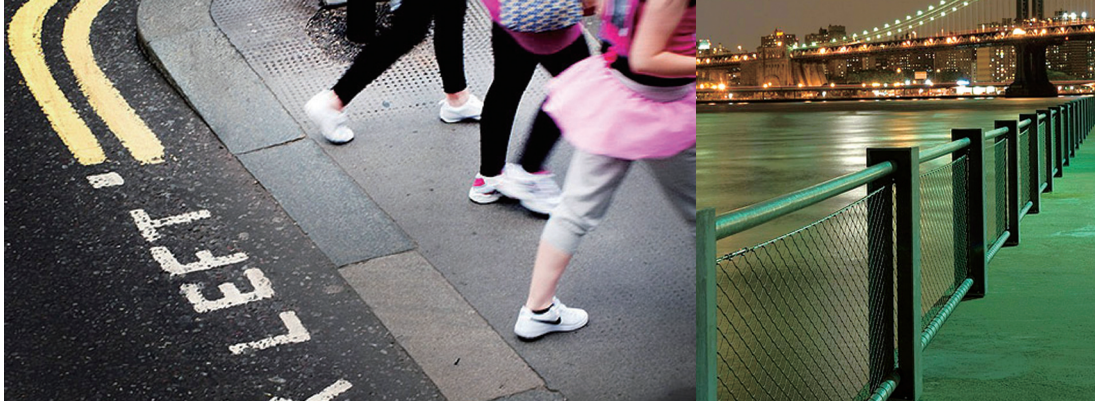
이에 있어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⁶

- 주거환경을 포함한, 양질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 현재 안정적이며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생태계
-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자원을 절약하는 지역사회
- 생활과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의, 높은 정도의 시민들 스스로의 참여와 통제 기능이 원활한 사회
-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요구 즉, 음식, 물, 주거, 수입, 안전, 직장 등의 충족
-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다채롭고, 활기 넘치며, 혁신적인 도시 경제
- 역사적,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이 보존되며 다른 집단과 개인간의 협력이 장려되는 사회
- 건강도시의 제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진 도시
-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보장되는 도시
-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이 높은 도시

우리는 위에서 건강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은 질병을 줄이는 물리적인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5) 헨콕(Trevor Hancock)은 건강도시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특징들 다음의 12가지로 설명하였다.: 질병치료 지향적이기보다 건강 지향적(salutogenically oriented)이고 예방적임,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복리와 적합함의 추구, 통전적(holistic), 간학문적, 사회적인 배려와 인식, 결과와 동시 과정도 중시, 역량을 강화하고 복돋음, 정책 상관적, 해석적, 행동 지향적, 지역사회 통제적(Trevor Hancock, “The Healthy City from Concept to Application: Implication for Research,” John K. Davies and Michael P. Kelly, eds., *Healthy Cities: Research and Practice*, 24.).

6) Evelyne de Leeuw, “Nurturing Healthy Cities: Research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Takehito Takano, ed., *Healthy Cities and Urban Policy Research*, 140.



그 운동은 건강도시의 여러 결정요인들을 제시하는 바, 보건의료 서비스의 활성화, 음식, 주거지, 난방 관계, 안전성 등을 다루는 물리적인 요소(건물과 녹지의 배치, 보행자 도로에 대한 관심, 교통수단의 구성에 대한 문제, 쓰레기 처리의 문제), 지역사회와의 통합과 자존감의 문제를 다루는 정신적인 요소,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활동 강화, 건강을 지원하는 사회체제적 요소, 그리고 질병과 건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요소,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경제적인 요인, 물과 공기와 토양의 오염 문제 등을 다루는 생태환경의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⁷ 건강도시의 개념은 지역 주민의 의학적 건강의 수준으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되며, 전 영역의 통전적인 결합을 통해 건강증진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건강도시운동과 통전적 샬롬(holistic shalom)

건강도시운동과 연관된 중요한 현장 가운데 하나인, 1986년의 '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은 건강증진이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 바 있다.⁸

“건강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개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완전한 육체적이며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복리에 이르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의 열망을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그것에 맞설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건강은 삶의 목표라기보다는 매일의 삶을 위한 자원으로 생각된다. 건강은 육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자원들을 강조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건강증진은 건강부문에 대한 책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복리를 향한 건강한 삶의 스타일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상의 정의에서와 같이 건강도시 운동이 말하는 건강에 대한 개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건강에 대한 개념들을 넘어선다. 그것은 전인적이며 통전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같은 건강과 치유의 통전성은 질병의 원인들을 분석하여 볼 때에도 알 수 있다. 질병의 원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

7) WHO, "City Planning for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97), 24,7)

8) <http://www.who.int/healthpromotion/conferences/previous/ottawa/en/index.html>의 현장 앞부분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에 대한 설명에서.



는바, 조상과의 관계에서의 유전적인 원인, 자신의 잘못된 생활양식 곧 잘못된 식생활, 과로와 무절제, 운동부족, 열악한 주변과 사회적 환경,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적절하지 못한 노동,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등 상당히 다방면의 원인들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질병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과 상관된 것이 아니며, 나와 하나님, 이웃, 자연과 환경, 자기 자신의 자아 및 유전적 원인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관계들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건강-질병-치유는 세 가지 모두 통전성을 갖는 것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일차원적인 것으로 다루어서는 곤란하다.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정신적이며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순수한 정신적인 문제만으로 파악하려 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제 배경에 있는 몸의 문제와의 연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반대로 육체적 문제도 단순한 몸의 이상의 문제만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은 많은 경우 정신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는 것으로, 육체적 질병을 야기하였을 정신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전인건강의 개념은 몇 가지의 구성요소들로 다시 정리될 수 있다. 전인건강에는 육체적 돌봄

에 집중하는 의학적(medical) 건강, 영적인(spiritual) 건강, 심리적인(psychological) 건강, 사회적인(social) 건강, 환경적인(environmental) 건강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는 바, 이에 우리는 건강도시를 지지하는 구성요소들로서 육체적이며 물리적인 차원, 환경적이며 생태적인 차원,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차원,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차원, 영적이며 종교적인 차원들을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이러한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관계의 온전함을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샬롬은 보통 평화라고 번역되지만, ‘건강함’이나 ‘완전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윌터스트롭은 이 같은 샬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샬롬이 정의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 정의 없이 샬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샬롬은 정의 이상의 어떤 것이다. 샬롬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 자아와 이웃 및 자연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말한다.”⁹⁾ 이런 의미에서 건강도시 운동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적 샬롬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질병을 ‘disease’라고 한다. 평안(ease)이 없는 상태가 질병의 상태라는 것이다. 샬롬이 무너진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며, 영과 육이 조화되고, 인간과 하나님이 조화되

며, 사람과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를 건설하는 곳에, 참 살롬과 주님이 주시는 건강함이 임할 것인 바, 건강도시 운동은 이런 총체적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도시운동과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이와 같은 건강이란 개념을 선교의 총체적 중심개념으로 보고, 그 개념에 의거하여 선교의 내용을 조율한 선교방식이 최근 우리에게 제기된 바 있다.¹⁰ 소위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보건의료)라는 개념으로 세계선교 단체인 World Vision 등을 통해 개발된 선교방법론이다.¹¹ Global CHE Network¹²이란 인터넷 사이트에선 이 CH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역사회보건의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만드는 전략으로, 전 지역사회를 빈곤과 질병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선교방식이다.”

CHE는 이 사회와 도시의 문제를 정의로운 평화로서의 살롬의 확산으로 압축한다. 빈곤과 질병을 포괄하는 살롬이 지역사회에서 증거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선교방식이 주장하는 바이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함을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바,

그것의 많은 원인들이 빈곤에 있음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복음을 타계적으로만 생각하여 오늘의 현실의 삶과 이완시킬 수 있으나, 이 CHE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한다. 건강이란 인간의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로부터 기독교의 구원개념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선교방식의 전망이다. 기독교 선교의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며 막연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현실 적용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하려는 것이 이 선교방식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질병과 빈곤을 퇴치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참 행복과 평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살롬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이전에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CHE의 주장이다. 곧 보수적인 ‘전도’와 진보적인 ‘사회적 행동’ 양면을 이 지역사회보건의료는 통합하는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건강도시운동이 이러한 CHE의 선교방식과 잘 조우하여, 보다 적극적인 선교의 개념이 창출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건강도시운동은 교회 안의 신자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 선교방식으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적 취지도 잘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기도 한다.



노영상 기독교윤리학자. 서울대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졸업,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으며 컬럼비아신학교(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연구교수를 지내고,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성과 윤리』, 『경건과 윤리』, 『예배와 인간행동』 등이 있으며 “신학사적 조망에 따른 기독교윤리학 방법론에 대한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9) Nicholas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3), 69.

10) 스텐 롤랜드, 『CHE를 통한 총체적 병화: 전인적 지역사회 개발선교』, 정길용 역 (서울: 에벤에셀, 2009).

11) CHE에 대한 자료들은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출판사인 MARC 출판사의 책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2) <http://chenetwork.org/>

연재 순서

I. 세계관과 생명윤리

II. 세계관과 생명의 시작점

III. 세계관과 생명의 종결점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인간이 다른 동물들로부터 구분되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동물들은 물질의 세계를 움직이는 내재적인 원리들 안에 갇혀서 그 원리들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인 반면에, 인간은 물질세계 밖에서 물질세계 전체를 자유롭게 조망하면서 그 의미를 묻는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주 안에 물질의 세계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일정한 체계를 세우고 그 체계를 통하여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의 의미를 묻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는 어디서 기원했으며, 어떤 힘과 원리에 의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념적 틀이 곧 세계관이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세계관이며, 마르크스주의라든가 진화론처럼 유사종교를 지향하는 모든 이념들도 세계관이다.

세계관과 윤리의 상관관계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에 대한 정의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이 다양한 정의들의 핵심에는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 여부를 비판적으로 따져 보는 작업이라는 레드라인(redline)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세계관과 윤리는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윤리는 그 자체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지평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서 9.11 테러사건이 정당한 행위인가의 여부를 따져 본다고 가정해 보자.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칼빈주의라는 세계관의 지평 안에서 판단하는 윤리학자와 마르크스주의라는 세계관의 지평 안에서 판단하는 윤리학자의 평가가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무겁다는 성경의 원리를 중시하는 칼빈주의적 윤리학자의 관점에서는 모호하고 유토피아적인 정치적 대의를 위하여 수천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적인 사회구조의 형성을 위해서라면 한 개인의 목숨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윤리학자는 이 행위를 숭고한 행위로 높이 평가할 것이다.

생명윤리란?

이와 같은 세계관과 윤리의 관계 설정은 세계관과 생명윤리의 관계 설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생명윤리(bioethics)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행동의 옳고 그름 여부를 비판적으로 따져 보는 작업으로서, 생명윤리도 어떤 세계관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실제 문제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여기서 생명윤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주체들이 주로 의료인들이었기 때문에 의료윤리(medical ethics)라고 명명했으나, 유전공학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동물학자, 식물학자, 수의학자, 화학자, 컴퓨터 공학자들까지도 생명을 다루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의료윤리라는 용어로는 이 넓은 범주를 담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보다 포괄적인 명칭인 생명윤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의료인들 이외에도 생물학자들, 화학자들, 컴퓨터 공학자들까지도 생명을 다루는 일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신체적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DNA의 성격에 기인한다. DNA의 차원에서는 인간과 다른 동물,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또한 생명의 기본단위가 모두 화학분자들임이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의 생명작용이 현존하는 어떤 컴퓨터 회로작용도 능가하는 극히 정교한 회로작용과 닮아 있다는 과학적 발견에 기인한다.

생명윤리란 주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

루는 분과이므로, 세계관 중에서도 특별히 생명윤리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인간관이다. 세계관을 협의로 정의하면 인간관이다. 인간은 어디에서 기원했으며, 역사 안에서 어떤 원리와 힘에 의하여 추동(推動)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등의 질문들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명윤리의 실제문제들에 대한 판단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 점은 II부와 III부에서 구체적인 실제문제

들을 다룰 때 명확해질 것이다. I부에서는 특히 기독교적 세계관의 중심으로서의 기독교적 인간관이 생명윤리의 총론적인 문제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의 방향을 결정짓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기독교적 인간관의 패러다임

기독교적 인간관은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창조-타락-구속의 패러다임이다. 다른 하나는 성육신-죽음-부활의 패러다임이

다. 전자는 세계와 인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이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와 사역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이다. 이 두 패러다임은 서로 상응한다. 창조는 성육신에 상응하고, 타락은 죽음에 상응하고, 구속은 부활에 상응한다.

창조: 성육신

먼저 창조-성육신을 보자. 이 세계 안에 있는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인간이 생명을 다루는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탐구하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선한 창조물이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입으신 몸 곧 물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인간창조에서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동이 되며, 이는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가 자신의 혼을 담은 그림을 화랑에 전시해 놓고 그 옆에서 있는데, 어떤 관객이 그 그림을 보고는 그림이 형편없다고 비난하면서 칼로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행동이 화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도 화가는 실제로 자신의 영혼이 칼부림을 당하는 고통과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마음과 기술로써 인간이라는 극상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극상품을 합당한 이유 없이 파괴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파괴당하는 고통을 겪으실 것이다. 인간이 생명을 다루는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탐구하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생명을 죽이거나 왜곡시키거나 파괴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면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평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관점은 부당한 방식으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배아복제, 줄기세포추출, 시험관수정, 낙태, 사후피임약, 안락사, 자살 등에 대한 판단의 방향이 여하해야 하는가를 시사해 준다.

타락: 죽음

다음으로 타락-죽음을 보자. 인간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였고, 그 이후 이 세계 안에는 심각한 타락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 왔다. 고통들 가운데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유래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심지어 죽음도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한 질병 때문에 찾아오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종 직전에는 질병의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게 된 가장 먼 원인은 인간의 타락이다. 질병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이 범한 특정한 죄가 그 사람의 특정한 질병을 초래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과 자연의 상태가 왜곡되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왜곡이 중첩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결과로서 온갖 형태의 질병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질병이 죄의 결과로서 온 것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도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질병: 죄와 죽음

기독교세계관의 패러다임에서 질병-죄-죽음은 양면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먼저 질병-죄-죽음은 죄의 결과이므로 극복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따라서 의료인을 포함하여 일군의 전문가들이 사람의 생명을

탐구하고 조작하는 목적은 질병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찾아온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바, 이 같은 행위는 죄로부터 세계 안에 찾아 온 악한 결과들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평 안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질병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질병-고통-죽음 안에도 하나님이 두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질병-고통-죽음도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인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쫓겨날 때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로이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별을 받았으나, 이런 조치들은 타락한 세상 안에서는 인간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은혜의 질서다.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할 때 정신도 분열되지 않고 건강하게 통일되며, 신체도 비만과 각종 성인병에 걸리지 않고 최적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녀출산은 잉태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때 산모와 아기에게 모두 가장 유익하다. 질병과 고통은 극복되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질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조심하

게 하고 자기 몸을 돌보게 하며 더 성숙한 정신을 갖게 한다. 이 세상에서 고통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선한 열매는 없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가장 겸손해지고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삶보다 월등히 나은 삶으로 들어가는 복된 관문이다.

구속: 부활

마지막으로 구속-부활을 보자. 죄로 인하여 찾아온 질병-고통-죽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원리적으로 극복되었으며, 역사의 마지막 날 신자들이 신령한 새 몸을 입을 때 완전히 극복될 것이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구속-부활은 질병-고통-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둘째로, 구속-부활은 이 노력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준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질병은 결코 완전히 극복될 수 없을 것이며, 질병치료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성공에 불과할 뿐,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신체적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마지막 날 신령한 새 몸을 입을 때에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이상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산하 기독교윤리연구소장이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TV속 맛집의 진실에 관한 실험

김재환 감독의 '트루맛쇼'

강진구



‘맛(Taste)’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촬영을 마치고 문을 닫습니다. TV서 맛은 맛이 없습니다. 아니... 방송이 맛이 있습니다. ‘트루맛쇼’를 계속 볼 것인가? 아니면 채널을 돌릴 것인가? 이제 선택하십시오. -김재환 올림-

TV속 맛집의 실체를 밝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가에서 ‘맛 Taste’이란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해 온 이 퓨전음식점 문에 붙여진 폐업 안내문은 요상하기만 하다. 음식점을 차린 목적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팔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음식점의 설립목적은 뜻밖에도 ‘TV속 맛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임시로 세운 실험용이라는 것.

MBC PD 출신의 김재환 감독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TV 속 맛집의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방송가를 흔들어 놓았다. 제목 〈트루맛쇼〉는 피터 위어 감독이 1998년 만든 영화 〈트루만쇼〉에서 제목을 따왔다. 어려서부터 한사람의 성장과정을 몰래카메라로 들여다보는 이 영화는 진실은 TV안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귀에 익숙하면서도 영화내용과 잘 어울리는 절묘한 제목을 가진 이 다큐멘터리는 충격적인 내레이

션으로 시작한다.

“나는 TV에 나오는 맛집이 왜 맛이 없는지 알고 있다”

김감독은 일산의 변화가에 퓨전음식점을 차려놓고 식당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 그리고 맛집을 소개하는 제작진들과 식당주인을 연결시키는 브로커의 언행과 손님으로 가장한 출연진들의 멋진 연기(?)를 낱알이 카메라에 담았다.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 ‘TV 속 맛집의 실체’는 놀라웠다. 돈을 주면 방송에 나가는 정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해외토폭에 등장할 만큼의 기이한 음식을 개발하고, 또한 이를 즐기는 손님들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맛집의 실체가 사실은 완벽한 조작이었음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우리 사회와 방송의 구조적 문제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조작된 방송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 능하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와 방송의 구조적인 문제



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하는 식의 맛집 프로그램은 서로가 몰락할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오류를 낳게 되어 전통있는 맛집의 실종과 방송의 신뢰성 추락이라는 결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를 밝혔다는데 있다.

첫째, 포화상태를 넘어서 음식점간의 사활을 건 생존경쟁이 TV를 홍보에 끌어들이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2010년 12월 국세청이 처음 조사 공개한 ‘지역별 업종별 생활밀접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음식점 수는 43만 9223개. 총인구를 감안해서 산술평균으로 따지면 식당 1곳이 손님114명을 대상으로 장사한다는 얘기다. 치킨집과 같은 프랜차이즈점 식당이만도 무려 1만4729개에 이른다. 프랜차이즈점은 본사에서 알아서 광고를 해주니까 홍보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경우는 다르다. 옆집에서 TV에 나왔다고 대문짝만하게 간판을 걸고 난 후 손님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수 없는 노릇이다. 예전의 ‘원조경쟁’이 이제는 ‘TV 맛집 출연경쟁’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둘째, 방송사간의 열악한 제작환경과 높은 시청률

경쟁이 결국 맛있는 ‘희한한 맛집’을 개발하는데 이를 수 밖에 없었다.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일이 결코 나쁠 수는 없다. 그러나 진짜 맛집은 제한돼있는 까닭에 다른 방송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말도 안되는 음식을 소개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특히 많지 않은 제작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해당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음식점은 TV를 통해 홍보할 수 있어서 좋고, 제작진은 쉽게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 나쁠 것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하는 식의 맛집 프로그램은 서로가 몰락할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오류를 낳게 되어 있다. 그것은 전통있는 맛집의 실종과 방송의 신뢰성 추락이라는 결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몇



그저 맡은 일을 단순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 이르는 탁월성을 이뤄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작된 맛집이 필요없는 세상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몇 사람을 한 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다. 시청자들이 더 이상 맛집 프로그램을 믿지 않을 때 음식점 앞에 내걸 TV 출연 플래카드는 더 이상 '명예'가 아닌 '명예'로 남게 마련이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맛집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나 출연하기를 원하는 음식점 모두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존중함이란 정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탁월성을 인식할 때도 생기는 법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보이셨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인데, 그 포도주의 맛이 기가 막혔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저 맡은 일을 단순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 이르는 탁월성을 이뤄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작된 맛집이 필요없는 세상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2:9-10)



강진우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2004년 문화예술위원회 미술회관의 초대전에 전시한 작품들

십자가 만들기(2)

윤성진

중견작가 초대전에 출품하다

십자가를 만들게 된 경위를 적은 지난 8월호의 내용처럼 이후 계속 십자가를 만들다 보니 개인전을 해도 될 만큼 작품이 쌓였다. 이 십자가들을 모아 서울에서 개인전을 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문화예술위원회 미술회관에서 연락이 왔다. 그곳의 프로그램에 매년 2명의 중견작가를 선정하여 초대전을 기획하는데, 기획위원회의에서 2004년 초대작가 2명 중, 1명으로 나를 선정하였다는 것이었다(1명은 조작가 홍명섭). 내가 파리로 간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통 작품을 볼 수 없으니 그간 어떻게 작품이 변했나 보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아마 십자가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뭇 듯이 기뻐다. 왜냐하면 개인화랑이 아닌, 공공미술관에 초대되어 십자가 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적인 가치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미술관은 말 그대로 공공적인 기준으로 기획되고 전시되기 때문이다. 나는 십자가만 전시할 것인데 괜찮겠냐고 하는 우문은 하지 않았다. 잘 알았으며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수 개월이 지나 전시작품의 자료들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자 속으로는 걱정이 좀 되었지만 십자가 사진들을 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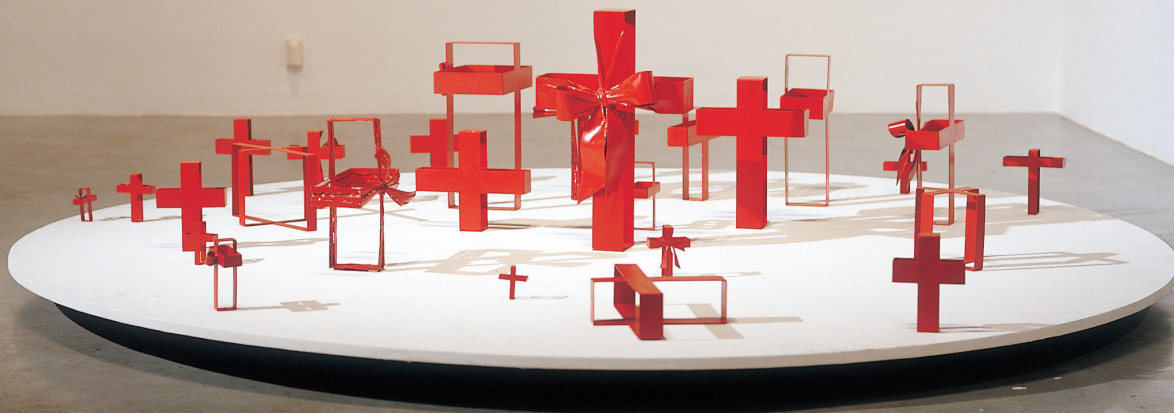
내 마음의 교회, 250x 180x 400cm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 한편에는 십자가가, 다른 한쪽 편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뚫어내어 두 개를 겹쳐 볼 수도 있다.

히 보내었다. 예상대로 난리가 났다. 웬일로 작품들이 십자가 뿐이냐고 다른 것은 없냐고 다그쳐 물어왔다. 나는 없다고, 그렇지만 전시 해 놓고 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전시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기획위원 중에 그리스도교 신자도 있는 것 같아서, 취소하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다행히 별 말 없이 진행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특이한 전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다. 전시 준비는 파라다이스문화재단에서 지원도 받고 하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파리에서 작품들을 운송하여 커다란 두 전시장안 가득히 십자가들을 설치하고 보니 하나님께 커다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감사함과 감동이 있어 흡족한 마음이었다. 십자가를 미술관에서 큰 규모로 전시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되었다.

교회 안밖의 대조적인 반응들

그런데 세상은 나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서 박수만 쳐주는 것이 아니었다. 믿음을 갖은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 개의 관점은 작품이라는 결과물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전혀 보지 못하거나 하는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 작품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대상이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었다. 전시 오프닝 전날 일간지 기자들과 전시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주최측의 주선으로 가졌고, 작품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하였지만 다음 날, 몇 줄의 단신이 몇 개 나왔을 뿐 제대로 된 기사로 다루어 지지 않았다. 미술 전문 잡지들도 마찬가지로 다루지 않았다. 반면에 나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 신문, 잡지, 방송매체가 많은 있다는 것을 이전에 알지 못하였었다. 매일 인터뷰를 했고, 교계 신문이나 방송에서 크게 다루었다. 교회와 교회 밖과



작품명 : 말씀의 선물, 신약 27권을 크고 작은 십자가들로 만들었다.

는 너무도 다른 상황인 것이었다. 많은 믿지 않는 작가 친구들이 와서는 작품이 많이 변했네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거 아냐 하는 말들을 남기고 갔다. 한 믿지 않는 평론가가 한 말, '일반적인 작품을 잘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만드니 십자가도 좋네' 라는 말이 위안이 되는 상황이었다.

전시회를 통해 느낀점

신앙적으로나 조형적으로나 잘 만들어진 십자가로 일반 미술계에도 영향을 주고, 현대미술의 관점에서도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한편, 세상의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를 심는다는 나의 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이 일이 단 한번의 전시로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그 동안 내가 미술계에서 해온 활동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토대는 쌓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초전박살이 난 것이다. 하지만 득도 있었다. 우군이 생각보다 큰 힘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앞으로의 전술에 대하여도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 적당히 중간지대에서 전체를 아우르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고 우리 진영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상에 대응하여야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대로 세상에서 익숙한 형식 속에 교회를 내재시키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이 유효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역량을 길러 세상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방법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현대미술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신앙 안에서 세상에서의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방법이 어렵다. 그 이유는 허무주의를 기초로 하여 20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현대미술이 극단적인 비기독교적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그 양상



미태복음 27장 11절 ~ 28장 10절의 각 절을 흰 천 위에 흰색 실로 수놓고, 핏자국들을 붉은 실로 수놓은 작품

이 극한으로 치달아 안티 기독교, 동성애, 자학, 자기 상실 등등의 비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온전한 정신의 작품들은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미술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미술에 대응할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구의 교회는 힘이 없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들은 미술을 멀리해왔기 때문에 미술이 문화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 큰 미술관에 가서 보면 중세에는 모든 미술문화가 기독교 미술로 도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전에 한 친지는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온 후, '회화는 모두 기독교 미술 뿐이네' 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우리가 획득하는 정보의 80%는 시각체험에 의한다고 한다. 하루 종일 눈뜨고 보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매체들이 쏟아내는 이미지들은 선한 것일까? 특히 우리의 눈을 끌어 붙잡은 시간에 효과를 높이려는 광고들은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선한 것들일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선한 양심적 정서를 줌먹는 것들이다. 교회는 좀더 예술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음악과 좋은 이미지들을 생산해내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파리 화랑가에 갤러리를 만들다

이러한 생각들로 나는 교회와 세상의 접촉점으로 화랑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같이 조각가로 활동하는 처(박상숙)와 함께 2005년,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인 파리의 가장 중요한 화랑가인 마레 지역에 갤러리(Galerie Lumen)를 만들었다. 우리는 일반적인 현대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중에 기독교 미술 작품전을 끼워 넣기 시작하여 10년 뒤에는 모든



작품명 : 촛대 촛대십자가 모양으로 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작품명 : 목시 석고 속에 철 십자기를 묻고, 녹물이 배어나오게 했다.

전시를 기독교 전시로 한다는 알찬 계획이었는데, 매년 1-2회의 기독교미술을 기획하여 전시는 하였지만 7년이 지나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못하고 있다. 그간 ‘한국의 기독교미술’, ‘예수님의 얼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흠어진 나그네’, ‘성령의 불’ 등의 테마로 기획된 전시회에 30여명의 한국 기독교 미술의 대표적 작가들이 전시되었다. 2006년, 한 기획전에는 평소 사진을 많이 찍으신 옥한흠 목사님도 참여작가로 모셨었는데, 피카소 미술관 근처의 화랑에서 훌륭한 작가들과 함께 데뷔전(?)을 갖

게 되어 기쁘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다. 이러한 전시들은 마치 큰소리로 외치며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으로 꾸준히는 하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기독교 미술 작가들은 세상에 대하여 열려있는 자세로 더 뛰어난 작품들을 제작하고, 하나님의 때도 기다려야 한다.



윤성진 1952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5년 이후,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2005년에 파리에 갤러리 뤼멘을 설립하였다. 그간 국내외에서 7번의 개인전과 100여회 이상의 초대전에 참가하였고 1986년, 동아미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인촌기념관, 전쟁기념관, 한국은행,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L.A. Cornerstone 교회, CTS 사옥, 오산고등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나에게 주님은 애매한 친구인가 미쁘신 친구인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얼마 전, 아들 결혼식을 위해 청첩장 봉투에 주소를 쓰다 보니 고민이 생겼다. 알리기도 그렇고 알리지 않기도 애매한 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머뭇거리던 중 친구로부터 원망 섞인 역정도 들었다. 본인은 지금까지 나를 돌도 없는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두들 자기 일처럼 기꺼이 축하해주었지만 청첩장이 고지서처럼 부담을 가진 분들도 있을까봐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미안함이 남는다. 누가복음을 읽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비유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그동안은 “너의 이웃이 누구냐?”로 알고 읽었던 대목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눅 10:36)”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지를 물으셨다. 지금까지 나의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만 쉽게 생각했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나 나를 이웃이라고 여기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 보다 내가 누구의 친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청첩장을 보내며 고민했던 것처럼 혹 내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애매한 친구는 아닐까.

우리는 주님을 쉽게 ‘친구’라고 노래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 할 수 있겠나. 그것도 제자인 우리가 감히 선생님께, 하찮은 종이 감히 주인님께, 낮은 백성이 감히 높으신 임금님께 버릇없이 친구라 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친구’라 하셨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요15:14-16)”라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노래 곡명처럼 우리의 THE BEST FRIEND,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가끔 우리가 ‘미쁘신 좋은 친구’를 애매한 친구로 여길 뿐이지.

1891년,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빌혼(Peter Philip Bilhorn, 1865-1936)은 시카고의 무디 선생 교회의 전도 집회에서 회심한 후, 이 집회의 음악인도자가 되었다. 집회를 위해 먼 도시로 자주 이동할 때 마다 덩치가 크고 무거운 오르간은 운반 때문에 큰 골칫거리였는데, 차량제조업이 전직이었던 빌혼이 이를 위해 간편한 이동식 오르간을 발명하였다. 내가 어렸을 적, 아외집회나 군용으로 많이 쓰인 점이면 가방이고, 펴면 건반이 나오는 사과궤짝 같이 생긴 빌혼 오르간(Bilhorn Brothers Organ)을 교회에서 본 적이 있다.

영어 찬송의 ‘Oh, the best friend to have is Jesus’는 우리말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고 번역하였는데, ‘미쁘다’란 말은 ‘믿음성이 있다’ ‘미덥다’, ‘진실하다’란 뜻으로 후렴에서 ‘예~수’와 ‘친~구’의 긴 박자도 ‘미쁘신’이란 시어(詩語)를 음미할 수 있는 좋은 음악적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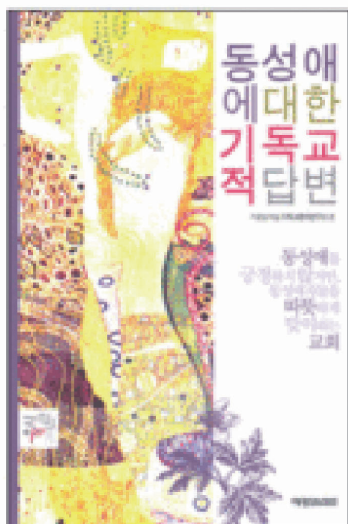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원장

동성애를 긍정하진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 노영상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1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본 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종교계의 반대 표명으로 야기된 격론에 대해, 차분히 반성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월 인권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8월 추진위 안을 마련한바 있었다. 인권위원회는 이 안을 보강하여 최종적으로 2006년 7월에 권고법안을 내놓았다. 그 후 2007년 7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었으며,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각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07년 12월 13일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인권단체들은 2007년 11월 28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한 끝에 자체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반차별 공동행동은 2008년 1월 28일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별도로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바 있다. 이렇게 하여 차별금지법안은 세 개가 되게 되었다. 인권위가 2006년 7월 만든 권고법안, 2007년 12월 13일 정부가 내놓은 정부법안, 그리고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차별 공동행동 측의 차별금지법안 등이다. 이 같은 찬성과 반대의 양자 의견 사이엔 여러 부분에서의 이견이 있지만, 그 중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부분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문제 곧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였던 것으로 본 책의 목적은 이 문제를 정돈하려는 데 있었다.

동성애에 관한 세 가지 입장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의 세 가지의 입장이 있다. 동성애를 일종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문제로 보는 견해와 질병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죄의 한 가지로 보는 견해이다. 동성애를 일종의 정신적 질병으로 보는 견해는 동성애를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 치료의 객체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동성애를 일종의 성적 지향으로 보는 견해는 동성애를 퇴치하거나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일종의 인간 나뭇잎의 특이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일종의 질병으로나 또는 성적 지향으로 보기보다는 죄의 하나로 보며, 동성애자를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물론 동성애자뿐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그런 죄인의 입장에서 동성애자들을 역시 다른 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 책은 이 가운데 성경의 입장에 많이 치중되어 동성애를 논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최근 우리 사회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 기독교계의 다양한 입장들을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구상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최근 우리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분위기는 송해룡 교수와 강진구 교수의 및 장현일 사무총장의 글들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제1부에서는 ‘오늘의 문화 속에 나타난 동성애 문제’를 언급하였다. 제2부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반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제3부는 ‘동성애 문제와 교회의 법제적이며 목회적인 실천’이라는 제하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회의 실천적 대응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러 원고들을 모아 책으로 묶으며, 우리는 기독교계의 대강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책의 부제에서와 같이,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가 본 책의 전체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배정훈, 소기천, 곽재욱, 정원범 교수 등이 이 일을 맡아 수행하였는바,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이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의 학자들은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성경구절들을 자신들의 견지에서 해석하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그러한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필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긍정하진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려 하고 있음에 대한 입장이 여러 교수들의 글에서 발견된다. 이상억 교수와 박성관 교수의 글은 이 같은 입장을 잘 반영하였다.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진 않지만,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목회적이고 치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이 논문들은 잘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약자 및 소수자로 생각하여 보호해야 하는지를 김호경, 김진 교수가 잘 설명하였다. 김호경 교수는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동성애 속에 내재하여 있는 힘의 논리를 분석하며 동성애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려 하였으며, 윤리학자인 김진 교수는 덕윤리학의 한 부류인 배려의 윤리학의 입장에서 동성애를 관찰하려 하였다. 동성애를 규범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배려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그 배려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함을 김 교수는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동성에 관련법의 논의를 위해 기반이 되는 문제들이 검토된 다음, 박종운 변호사와 노영상 교수는 각 금의 동성애에 관한 법제화 논란의 문제를 추적하였다. 박종운 변호사는 성전환자 관련 법률 제정의 문제에 대해서 논구하였으며, 노영상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 금지법안 상의 '성적 지향'이란 단어를 삽입하는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두 논문은 모두 동성애를 긍정하진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금년 5월 본 책을 만드는 중 미국장로교회(PCUSA) 헌법의 '치리형식(The Form of Government)' G-6.0106-.0108의 b항에 대한 수정이 찬성 373표, 반대 323표 기권 4표로 통과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부분은 동성애자의 교회직분 임명에 대한 규정인데, 기존의 헌법 내용 중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 언약 안에서 충실하게 사는 자에게만이 교회의 직분이 주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동성애자가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 것이다. 향후 이러한 미국장로교회의 결정은 미국의 한인교회들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거니와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 책의 그러한 논의들에 큰 참고가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몇 가지 한계들

그럼에도 이 책엔 몇 가지의 한계가 있다. 여러 필자들의 글을 모은 것이어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들마다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동성애에 대한 견해가 동일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하다.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약간은 진보적인 입장도 표출되어 있어서, 나름의 결론을 독자 스스로 내리도록 의도되어 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미국교회들에서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의 미국장로교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미국교회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약자로서의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아쉬움이다. 물론 몇몇의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해 다루기는 하였지만 설득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이 후일 개정될 때 이런 문제들이 참조된다면 더욱 완성도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노영상 기독교윤리학자, 서울대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졸업,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으며 컬럼비아신학교(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연구교수를 지내고,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성과 윤리』 『경건과 윤리』 『예배와 인간행동』 등이 있으며 “신학사적 조망에 따른 기독교윤리학 방법론에 대한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한국에서 홈스쿨하기

◎ 박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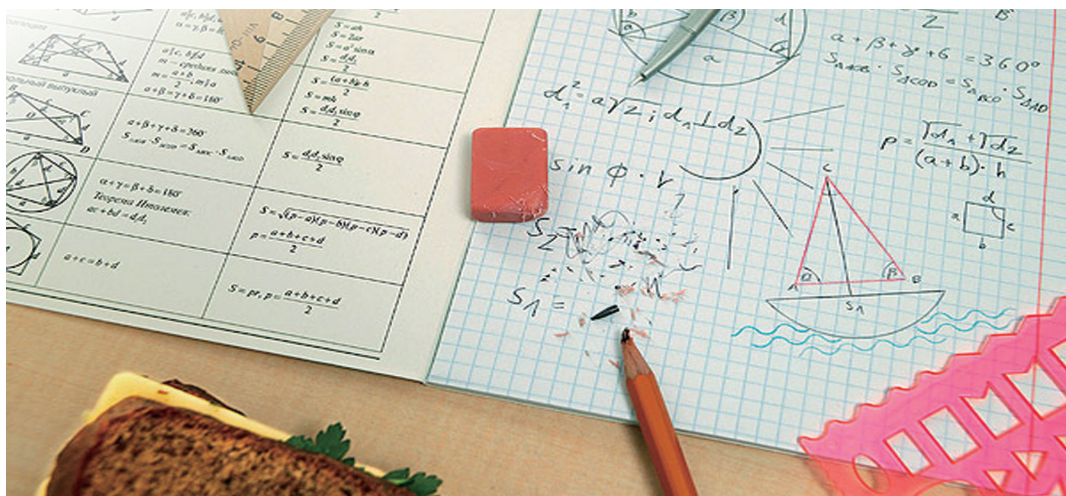
안점식, 우도환, 마병식, 이정진, 박진하, 권장희 저
꿈을 이루는 사람들(DCTY), 2011년 06월 27일

한국 최초의 기독교 홈스쿨 저서

“아, 드디어 나왔구나.” 이 책의 원고를 받아 본 후 내 입에서 흘러 나온 감탄의 소리였다. 한국의 홈스쿨을 하는 부모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저술된 첫 번째 기독교 홈스쿨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홈스쿨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줄 수 있는 책이다. 홈스쿨을 왜 하는지? 그리고 홈스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마치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자상하고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명의 저자들이 홈스쿨의 다양한 측면들을 써 내려가는 것이 마치 예쁜 그림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 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하’하며 홈스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함께 홈스쿨에 대한 용기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이 저술되기까지는 수 십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 책은 단지 책상에서 머리로 쓴 책이 아니라 저자들이 오랜 세월동안 직접 홈스쿨을 하면서, 그리고 홈스쿨 운동에 참여하면서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게 된 것들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의 적용이 가능한 책이다. 저자들 한 분 한 분이 한국의 기독교 홈스쿨링 운동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쓴 주제에 대해서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분들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권위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로 번역되어 다른 나라의 홈스쿨러들에게도 읽혀져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책이다. 그동안 홈스쿨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홈스쿨에 대한 안내서가 제대로 없다고 안타까워했지만 이제는 이 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불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왜 홈스쿨을 하는가?’로서 왜 기독교 홈스쿨인가, 홈스쿨 시작하기,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홈스쿨을 할 것인가, 고전교육으로 가르치기, 성경의



단지 홈스쿨에 대한 테크닉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녀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홈스쿨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다.

명령: 자녀 제자화, 다양한 자녀, 다양한 부모, 다양한 홈스쿨, 아버지의 역할과 성공적인 홈스쿨, 홈스쿨의 미래, 기독교 홈스쿨과 교회 공동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어떻게 홈스쿨을 해야 하는가?'로서 성경적 육아법, 홈스쿨 스케줄링, 자녀를 위한 커리큘럼 만들기, 전략적 홈스쿨 공동체: CO-OP, 협력모임의 활용과 사례, 지역 네트워크 모임의 시작과 운영, 홈스쿨에서의 품성교육, 홈스쿨 가정의 미디어 통제, 홈스쿨러를 위한 음악 이해, 홈스쿨러를 위한 대학 진학과 준비, 그리고 기독교 홈스쿨과 학과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에는 홈스쿨에 도움이 되는 목록이 망라되어 있다.

이 책은 홈스쿨을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자녀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은 단지 홈스쿨에 대한 테크닉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녀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고, 교육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 행여 홈스쿨에 대해서 저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홈스쿨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홈스쿨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학도들을 위한 교과서로, 그리고 기독교학교나 교회의 부모교육 교재로 귀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문제가 최대 고민인 한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도 꼭 정독해야 할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



박상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이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문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및 발표자 모집

제 28회 기독교문학회가 11월 12일(토) 10:00~18:00에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기독교학문 연구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회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1년 11월 12일(토) 10:00~18:00

장소 총신대학교 제1 종합관 2층 세미나실

주관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주최 (사)기독교경영연구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인문학연구소, 문화선교연구원

대상분야 경제/경영, 자연과학, 문화/예술, 정치/외교, 교육, 법학, 역사, 상담/심리, 인문학, 사회복지, 철학

신청마감 2011년 9월 30일

원고마감 2011년 10월 31일 (자료집 발간 원고 마감일)

신 청 gihakyun@daum.net, 02-3272-4967

신청내용 성명, 소속, 직책, 전공, 논문제목, 휴대전화, e-mail)

[대학원생의 논문발표 권장\(우수 논문 선발 시상 예정\)](#)

선착순 3편으로 발표논문을 마감

작성방법 <신앙과 학문> 투고규정 참조

발표 논문은 <신앙과 학문> 투고시 심사 우대.

문의 02-3272-4967(사무국), 010-8456-5145(사무국장), gihakyun@daum.net

이사장 및 임원진 중국 방문 국제기독교연구소 설립논의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손봉호 이사장과 김승욱(실행위원장), 정희영(학회장), 조성표(연구소장), 김승태(대외협력위원장) 임원들이 중국 항주와 상해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중학술교류를 위하여 절강대학교에 국제기독교연구소 설립하는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6기 선발 및 개강예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6기 선발을 위한 면접전형이 9월 30일, 10월 1일에 있었습니다. 선발된 6기생들은 10월 8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미디어와 세계관 교육의 전체 일정을 진행합니다.

CTC 크리스천싱킹센터 일산 대화동 오픈

2007년 여름 청소년생각캠프를 출발로 사역을 시작한지 4년 만에 일산시 동구 대화동에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세계관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공간이며, 어린이, 청소년, 부모들을 위한 세계관 교육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센터 마련을 위해 헌금해 주신 권신우 선생님(1기 어린이세계관학교 참가자)과 CTC의 사명과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부의 팀장(아세아연합신학교 신대원생), 안성희 팀장(합동신학교 신대원생), 그리고 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제공해 주신 청소년세계관학교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양성'을 목표로 청소년 세계관교육을 감당하고자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센터 오픈 기념예배 안내

일시 : 10월 7일(금), 오후 2시

장소 : CTC 크리스천싱킹센터(경기 고양시 일산 대화동 2272-5번지 1층)

문의 : 한부의 팀장(010-7301-7178), CTC(070-4306-8439)



CUP 신간 부부학교



CUP의 베스트셀러 <부부학교>의 저자 게리 토마스의 신간 <부부학교>가 출판되었습니다.

기존의 부부관계에 관한 책들이 상담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이 책은 하나님의 관점에 더 주력해서 쓴 책입니다. 저자와 많은 부부들의 구체적인 삶의 예들을 통해 흥미로우면서도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구체적인 나눔을 위한 질문지가 있어 가정이나 그룹스터디에서 활용하기에도 좋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A5, 376페이지, 15,000원.



Samsung GALAXY S II

4.3 SUPER AMOLED PLUS

MOTION UI

DUAL CORE

2011년 제28회

기독교학문학회 개최 및 발표자 모집

주제 : 기독교학문 연구현황과 발전방향

일시 2011년 11월 12일(토) 10:00~18:00

장소 총신대학교 제1 종합관 2층 세미나실

주관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주최 (사)기독교경영연구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인문학연구소, 문화선교연구원

대상분야 경제/경영, 자연과학, 문화/예술, 정치/외교, 교육, 법학,
역사, 상담/심리, 인문학, 사회복지, 철학

신청마감 2011년 9월 30일

원고마감 2011년 10월 31일 (자료집 발간 원고 마감일)

신 청 gihakyun@daum.net, 02-3272-4967

신청내용 성명, 소속, 직책, 전공, 논문제목, 휴대전화, e-mail)

대학원생의 논문발표 권장(우수 논문 선발 시상 예정)

선착순 3편으로 발표논문을 마감

작성방법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규정’ 참조

worldview.or.kr)기학연(학회))투고요령)투고규정

발표 논문은 〈신앙과 학문〉 투고시 심사 우대.

문의 02-3272-4967(사무국), 010-8456-5145(사무국장)

gihakyun@daum.net, info@worldview.or.kr